

○ 2020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중·고등학생 기초학력 저하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줌

- 기본 수업도 못 따라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중3은 △국어 6.4% △수학 13.4% △영어 7.1%, 고2는 △국어 6.8% △수학 13.5% △영어 8.6%로 나타남
 -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도 국·영·수 전 과목에서 전년대비 감소

〈 표 1 〉 중3, 고2 학생 교과별 성취수준 비율(%)

	기초학력 미달(1수준)						보통학력 이상(3~4수준)					
	중3			고2			중3			고2		
	국어	수학	영어	국어	수학	영어	국어	수학	영어	국어	수학	영어
2019년	4.1	11.8	3.3	4.0	9.0	3.6	82.9	61.3	72.6	77.5	66.5	78.8
2020년	6.4	13.4	7.1	6.8	13.5	8.6	75.4	57.7	63.9	69.8	60.8	76.7

주: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△거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고 수행(4수준), 상당 부분을 이해하고 수행(3수준),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수행(2수준), 이해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 필요(1수준)

출처: 교육부,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(2021.6)

○ 정부 주장대로 '코로나 탓'만은 아님...학력 저하는 코로나 전부터 이어져 왔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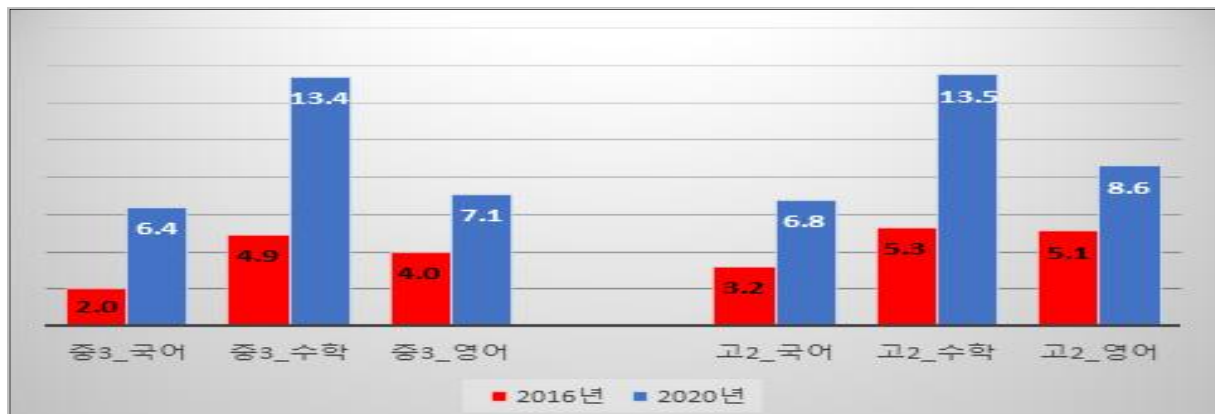
- 지난 4년간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~3배 늘어났음
 - 중3국어(3.2배), 중3수학(2.7배), 고2수학(2.5배), 고2국어(2.1배), 중3영어(1.8배), 고2영어(1.7배)
- 원인은 정부가 기초학력 평가를 경시하며 학습 부진을 방치한 데 있음
 - 현 정부 들어 기초학력평가 방식을 전수조사에서 표집평가로 바꾸고 초·중·고 학생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학습 결손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을 더 어렵게 했다는 지적

○ 기초학력 추락을 막으려면, 우선 부실한 학력 평가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

- 전국의 모든 초·중·고 학생이 참여하는 학습평가체계가 구축되어야 종합적인 진단과 제대로 된 학력 향상 대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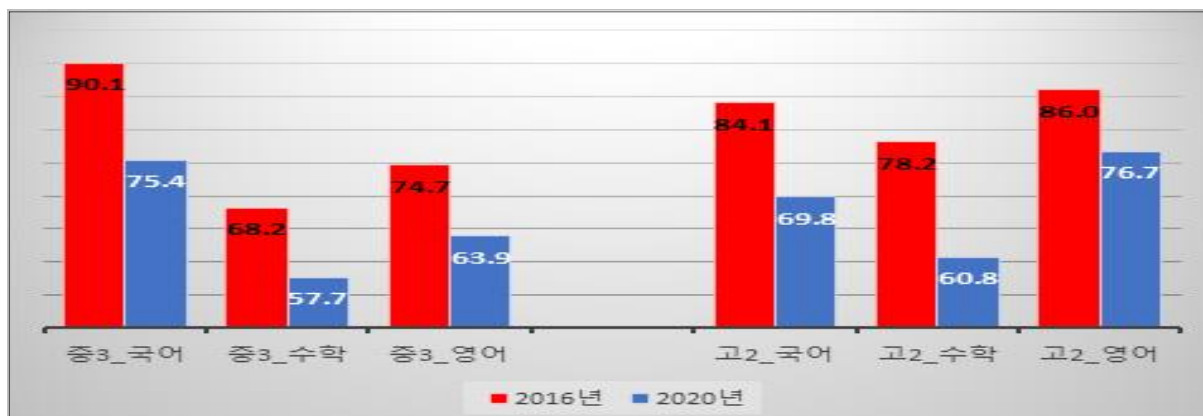
2016년 → 2020년, 중고생 학력미달(1수준) 비율 1.7~3.2배 급증

단위: 비율 %



2016년 → 2020년, 중고생 보통학력 이상(3~4수준) 비율은 감소

단위: 비율 %



출처: 교육부, 201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(2017.11),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(2021.6)